

■ 민주 선거인단 모집 후 컷오프, 공천 최대변수 부상

탈락 후보 합종연횡 현역들에 '재앙'

특정후보 밀어주기 비밀 가능성... 공천자 결정 할 수도

해남·완도·진도 박광운·윤재갑 "경선 진출 후보 지지"

에선 탈락 후보들의 움직임이 민주 통합당 4·11 후보 공천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컷-오프(후보 압축)에 앞서 이뤄지면서 생김 결과다. 국민 경선이 1대 1 양자 대결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자신이 모집한 선거인단에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작정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줄 경우, 국민 경선 결과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

는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을 앞두고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박광운·윤재갑 예비후보는 21일 경선 진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국민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진출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모 지역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이 국민 경선에 진출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재앙이다. 조직력을 총동원, 선거인단을 모은다고 해도 3~

4명의 예비 후보들이 모은 선거인단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 경선 승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예비 후보들 간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모집한 선거인단에 국민 경선에 진출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예선 탈락 예비후보들과 국민경선에 진출한 예비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모을 전망이다. 당장 일각에서는 일부 예비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결과적으로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선 선거인단 지원을 매개로 기초단체장 공천 등 정치적 거래와 돈 거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합종연횡

이 오히려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민 경선 특성상 조직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물갈이'를 원하는 지역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는 예비 후보들의 합종연횡은 사실상의 '단일화'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에서 이 같은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광주·전남 지역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국민 경선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선 탈락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첫 졸업식 전남대 국내 1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식이 21일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과 주철현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법전원 1호관 강당에서 열렸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날 96명의 법학전문석사를 배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김부겸·김영춘 포함 될 듯

■ 민주 오늘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故 김근태 고문 부인 인재근씨 전략 공천

민주통합당은 22일 4·11 총선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권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22일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되 충청·강원 등의 공천자 명단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 결과는 단수후보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결과와는 물론 복수후보 신청 지역 중에서도 단수후보 압축지역·경선 지역을 나눠서 발표할 계획이다. 1차 공천자 명단에는 문재인 당 상임고문(부산 사상구), 김영춘 전 최고위원(부산 진갑), 김부겸 최고위원(대구 수성구), 송인배 전 부대변인(경남 양산) 등 단수후보 신청지역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복수 후보 신청 지역 중에서는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한 부산 진을, 문성근 최고위원이 출마한 부산 북·강서를,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이 신청한 경남 김해 등의 심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단수후보 신청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일부 탈락자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치권 배제... 국회 밖 독립기구 필요”

■ 되풀이 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 해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 논의가 갈팡질팡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4·11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선거구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무시한 채 뒷날 사수라는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정치권을 맡기지 말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받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밖그릇 싸움'은 비단 이번 총선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밖그릇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37일 앞둔 3월9일에서야 확정했다.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근본적인 해

이 당시에는 구속된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보성·화순을 공중분해해 화순은 나주로, 보성은 고흥으로 선거구를 통합시켜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 2008년 4·9 총선에서도 여야는 지역구를 2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2석 감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구 획정안 역시 총선을 46일 앞둔 2월22일에서야 극장 처리했다. 이때도 해남·진도도와 완도가 한 선거구로 통합되는 등 지역특성과 정서가 전혀 무시된 게리맨더링이 자행되는 등 원칙이 없이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계특위가 자문기구 성격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선거구 조정은 '누더기'로 전락했다.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근본적인 해

결방안으로 선거구 조정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논의에서 원천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인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기구로 두고, 획정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국회가 획정위의 조정안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현재의 선거구 획정 구조에서는 4년 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배제한 채 선거구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살리는 획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임시기구의 형태로 운영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화하고, 획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정계특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광주·전남 후보자 도덕성 검증 등 면접 실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이하 공천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광주·전남지역 4·11 총선 공천심사 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는 광주 5명, 전남 16명 등 모두 21명이 면접심사를 받았다. 공천위는 도덕성·경쟁력·정책집안 능력 등을 집중 평가했다. 공천위는 또 공천신청자들에게 국회의원 출마 이유와 자신의 경쟁력 등을 설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위는 면접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2명 단을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권역별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당내 적합도 조사로 현역자를 포함한 공천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새누리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기초조사이고, 곧바로 진행되는 2차 조사는 현역 하위 25% 탈락을 위한 현역평가 조사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참 搜查 査조. 잉?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USA, Europe, and Japan.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